

# 2020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인문계열)

모 집 단 위		수 험 번 호		성 명	
------------------	--	------------------	--	--------	--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십시오.

### 제시문 (가)

<앞부분 줄거리>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백년 전쟁 중이던 1347년 프랑스의 도시 칼레는 영국군에 포위되어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영국 국왕은 칼레 시에 사신을 보내 항복 조건을 제시했고, 여기에 대처할 방법을 논의하기 위하여 칼레 시를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이 모였다.

**장 드 뷔엔느**(시의회 의장): (육중한 목소리로) 영국 국왕에게는 칼레 시를 제압할 무력이 있소. 이제 그 왕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오. 여섯 명의 의원들이 열쇠를 가지고 도시 밖으로 걸어 나오라는 것이오. 맨머리와 맨발로, 그리고 불쌍한 죄수복을 입고서, 목에는 오랏줄을 감고 말이오. (그는 고개를 처든다.) 여섯 명이 첫새벽에 도시를 출발해야 한다고 하오. 여섯 명은 칼레 시의 성 밖의 백사장에 남겨져서 목의 동아줄이 여섯 번이나 감기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오. 그것이 칼레 시와 칼레의 항구를 온전히 보전하기 위한 속죄가 될 것이오! (잠시 기다린 후에) 여섯 번 여기서 소리 높여 절문하겠소. 여섯 번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오! (매우 힘주어서 소리친다.) 어디에 그 여섯 명이 앉아 있소? (일어서서) 여기 앞으로 나설 여섯 명은 어디 있소?

절문이 지닌 부담이 좌중을 짓누르는 듯하다. 다음 순간 몸을 움직이고 소란해지면서, 이윽고 조용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다.

**유스뎃슈 드 쎬베에르**: (일어서더니 제자리로부터 중앙으로 걸어 나온다.) 내가 가겠소!

좌중이 곧 조용해진다. 장 드 뷔엔느는 놀라며 유스뎃슈 드 쎬베에르를 뚫어지게 쳐다본다. 연단에서는 “유스뎃슈 드 쎬베에르!”라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람이 손을 들고 나섰다. [...]

**네 번째 시의회 의원**: (왼쪽에서 일어서다. 서두름 없이 고개를 곧추 세우고) 내가 가겠소!

연단에서는 한층 큰 목소리로 “네 번째다!”라고 소리친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진다. 의원들 가운데 여러 명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 좌중을 빙 둘러본다. [...] 두 사람의 의원이 벌떡 일어서다. 두 사람 사이에 환관이 있어 서로를 못 본다.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계단을 내려와 환관 앞에 이르러 서로 마주 보게 된다. 그들은 실로 놀란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동시에 유스뎃슈 드 쎬베에르의 손을 잡고, 똑같이 말한다. “내가 가겠소!” [...] 의장이 사신인 영국군 장교를 부른다.

**장 드 뷔엔느**: (영국군 장교에게 중앙에 서 있는 여섯 명의 의원들을 가리키며) 내일 이들이 열쇠를 가지고 도시의 성 밖으로 나갈 것이오. 내일, 여섯 명의 시민들이 생명을 내맡길 것이오. 영국 국왕은 여섯 명의 속죄자를 요구하였소.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이오.

<뒷부분 줄거리> 다음 날 아침 여섯 명의 의원들은 영국 국왕 앞으로 나아갔다. 처형이 집행되기 직전, 국왕은 이 시민들을 살려 주었다.

### 제시문 (나)

It is a fairly widespread feature of our culture that suicide is looked upon with such a mixture of fear and disapproval that it's very hard to discuss the topic calmly and clearly. Most people think that you've got to be crazy to kill yourself. Indeed, the very fact that you are contemplating\* suicide in a desperate situation is evidence that you're crazy. And if you're not crazy, then it shows that you're immoral. Suicide, they say, is never the morally right thing to do.

So it's easy to become emotional when thinking about this subject. Still, what I propose to do is to examine the issue systematically. And the very first thing to do, in thinking about the topic of ending one's own life, is to distinguish questions of rationality from questions of morality. I'm going to begin the discussion by focusing exclusively on the former, asking under what circumstances, if any, suicide would be the rational thing to do. Only later will we turn to questions about morality which concerns whether or not an act of suicide is right or wrong, and when, if ever, suicide would be a morally permissible thing to do. In posing this distinction, I argue that these questions must come apart, or at least that they need to be examined separately.

Let's simply say, as we turn to the evaluation of suicide from the rational point of view, that we are going to restrict our attention to questions of rational self-interest, questions of what benefits or harms the person who is contemplating suicide. Even if there is more to rationality than simply doing what is best for oneself, it is possible to think that normally, at least, considerations of self-interest are the most significant ones for determining the rationality of suicide.

Is it ever rational to end one's own life? Suppose, for example, that you accept a certain position, according to which the quality of life is a matter of adding up all the pleasure and subtracting\*\* all the pain. Since the question we are asking is whether it would be better for me to have my life end now, we want to know whether the life I would have will be good on the whole, or bad. So we add up the total amount of pleasure and also add up the total amount of pain—taking intensity and duration into account for both calculations. We subtract the pain from the pleasure and look to see what the grand total is. If the total is positive, your life is worth continuing. If negative, it is not. A life with a negative balance would be filled with sufficient pain and suffering, and you would be better off not having it. Suicide can be rationally justified under certain circumstances if we are evaluating suicide from the perspective of rational self-interest.

Is it ever morally permissible to end one's own life? So, let's look at that topic now. As I said before, morality deals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an act is right or wrong. Suppose an army pilot's single-seater plane goes out of control over a heavily populated area; he has the choice of staying in the plane and bringing it down where it will do little damage but at the cost of certain death for himself, and of escaping to save his life and letting the plane fall where it will, very possibly killing other people. Suppose he chooses to do the former because he feels obliged to perform a moral duty to save lives, and so sacrifices himself. Does anyone want to say that his action is morally wrong? To end one's own life isn't always morally permissible, but it is sometimes permissible.

\* contemplate: to consider doing something in the future

\*\* subtract: to take a number from another number

**제시문 (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는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테러를 줄이기 위해 연구자들은 테러가 발생하는 원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테러리즘은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폭력이나 위협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심리적 충격이나 공포심을 유발하여 목적인 바를 관철하려는 행위다. 이런 행위를 자행하는 테러리스트를 광신자나 적개심으로 가득 찬 미치광이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테러리스트가 수행하는 극단적인 행위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은 공격을 감행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비용과 이익을 고려한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테러를 할 수 있다면 주어진 비용을 비교하여 이익이 가장 높은 방법이 선택될 것이다.

그렇다면 아무리 이익이 크더라도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자살 테러는 과연 합리적인가? 성공적인 자살 테러는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이후에 테러리스트가 검거되어 배후 세력이 밝혀지거나 조직이 위협에 처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자살 테러를 시도했던 테러리스트들을 면접 조사한 학자에 따르면, 자살 테러는 사회적 약자가 자신이 처한 절박한 상황에서 탈출하는 수단일 수 있다. 자살 테러에 실패하여 체포된 테러리스트들은 대부분 “비참한 삶을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고 고백한다.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보면 자살 테러를 시도한 사람들은 극심한 가정 폭력이나 가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극단적이고 절박한 상황에서 자살 테러가 성공하면 조직을 위해 헌신한 영웅이라는 명예가 남는다.

**제시문 (라)**

합리성과 도덕성이 어떻게 개인의 구조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Y 도시 60,000명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한 실험 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모든 실험 대상자에게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반드시 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중 하나를 답하게 했다. 다음으로 이 실험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없애기 위해 A, B, C 세 집단을 20,000명씩 무작위로 배정하여 구성했다. 세 집단에 속한 실험 대상자의 연령, 성별, 소득, 교육 수준 등은 차이가 거의 없었다. 각 집단에 속한 실험 대상자에게 물에 빠진 친구가 구조를 요청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A 집단에는 구조를 위해 뛰어들었을 때 본인이 생존할 확률을 0.2로 부여했다. B 집단과 C 집단에는 각각 0.5와 0.8을 부여했다. 구조 시 친구를 구할 확률은 A, B, C 세 집단 간 차이가 없다고 가정한다. 마지막으로 직접 구조를 위한 선택을 물어보는 질문에 “직접 구조한다”, “신고하고 기다린다” 중 하나를 답하게 했다. 실험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A 집단 (생존확률 = 0.2)

(단위: 명)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직접 구조한다	4,000	1,000
신고하고 기다린다	6,000	9,000

B 집단 (생존확률 = 0.5)

(단위: 명)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직접 구조한다	5,000	4,000
신고하고 기다린다	5,000	6,000

C 집단 (생존확률 = 0.8)

(단위: 명)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직접 구조한다	6,000	6,000
신고하고 기다린다	4,000	4,000

**[문제 1-1]** 제시문 (나)에 나타난 합리성과 도덕성에 대한 관점을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시의회 의원들과 (다)의 테러리스트들의 선택 행위를 분석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문제 1-2]** 다음 지문에 드러난 관점에서 제시문 (나)와 (다)를 평가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지문 A]**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상황에 처해서 이로움(이익)을 택하느냐 의로움(옳음)을 택하느냐는 매우 어려운 판단이다. 이로움과 의로움은 모두 필요한 것이니, 현실적으로는 의로움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로움이 적당히 충족되어야 하고 이로움을 추구하는 가치관에도 의로움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공자는 “이(利)를 보면 의(義)를 생각하고(見利思義; 견리사의), 위태로운 것을 보면 목숨을 바치며, 오랫동안 곤궁해도 평소에 하던 말을 잊지 않는다면 인격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눈앞에 이익이 있으면 먼저 그것을 취하는 것이 의로움에 합당한지를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의로움을 가치 판단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이로움의 추구가 나쁜 것인가? ‘견리사의’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익 추구가 옳은지 그른지 따져보라는 뜻이다. 이익이 된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좇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익을 개인의 욕망에 따라 무한하게 팽창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의로움의 통제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본 것이다.

**[문제 2-1]** 제시문 (나)에 나타난 합리성과 도덕성의 개념에 근거하여 제시문 (라)의 실험 결과를 설명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문제 2-2]** 지난 10년 간 Y 도시에서 물에 빠진 친구를 구조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든 사례는 총 203건 보고되었다. 이 중 물에 뛰어든 구조자가 생존한 경우는 42건이었으며, 구조자가 사망한 경우는 161건이었다. 제시문 (라)의 실험 연구에서 이 보고와 가장 가까운 생존 확률을 부여한 집단은 A 집단이었다. 이 집단에 속한 김연세가 친구를 직접 구조할 때, 그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일 확률을 제시문 (라)의 실험 결과에 근거하여 계산할 수 있다. 계산 과정을 제시하고 확률을 구하시오. 또 이에 근거하여 김연세라면 제시문 (가)와 (다)에 나타난 행위의 선택 기준을 각각 어떻게 평가할지 서술하시오. (25점)